고용노동부

보 도 자 료

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6. 2.(목) 14:30 2022. 6. 3.(금) 조간	배포 일시	2022. 6. 2.(목) 14:30
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양현수 (044-202-8901)
		담당자	사무관	김원빈 (044-202-8903)

고용노동부 장관, 철강업체 대표들과 '안전보건리더회의' 개최

- CEO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 · 점검하여 개선토록 당부-

□ **고용노동부**는 6.2(목) 14시 30분, 서울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주요 철강사* 대표이사 및 한국철강협회가 참석하는 **철강산업 「안전보건리더회의」**를 개최했다. (붙임1: 회의개요)

* (6개사) 포스코, 현대제철, 동국제강, KG스틸, 세아베스틸, 세아창원특수강

○ 이번 회의는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**철강업**의 **사망사고 예방**을 위해 **대표이사**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**안전보건 확보 의무** 등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이다.

- 특히, 올해 1.27.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시행 후 **상반기**가 거의 지나간 현 시점에서 현장의 **안전보건관리체계**가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를 **확인**하고, **점검**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○ 또한,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내 올해 사망사고가 증가한 **제조업**을 중심으로 **화학, 조선, 자동차** 등의 **주요 업종 대표이사**와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.

□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, 올해 5월 27일을 기준으로 **산재 사망사고**는 **전년 대비** 전체적으로 **감소**(276건→254건, ▵22건, 8%)하였으나, **제조업**에서만 **사망사고**가 **증가**(73건→78건, +5건, 6.8%)했다.

○ 최근 활황을 누리고 있는 **철강업**에서도, **지난해 12명**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, 올해도 5월까지 **5명**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.

□ 앞으로도 경기회복 등으로 **철강 수요**가 **당분간 높은 수준**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,

○ 생산량 증가에 따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**무리한 작업**이 이루어질 수 있고, **현장의 관리감독이 소홀**해질 **우려**가 존재한다.

○ 실제로, 올해 철강업 사망사고 5건은 모두 **설비 설치 · 수리**(3건), **자재 인양 · 운반작업**(2건)에서 발생하였는데,

- 이러한 사고는 **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태**에서 작업계획서 수립, 정비 작업 전 설비 작동 중지 등의 **기본적인 안전조치**가 **이루어지지 않아**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발표를 맡은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**사고예방**을 위해 **대표이사**가 「중대재해처벌법」(중대법) 상 부여된 **안전보건 확보의무**를 빈틈없이 **이행**할 것을 주문했다.

○ 특히, 중대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**반기 1회 이상** 전담조직 등을 통해 **현장의 안전관리 상태**를 **점검**토록 하고, **그 결과**를 보고 받아 **필요한 조치**를 지시 및 이행해야 하므로,

-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상시 근로자 **50인 이상 기업**의 대표는 **6월까지 이러한 의무**를 **반드시 이행**할 것을 강조했다.

□ 이어서, 참석한 **철강업체**들이 자사의 안전상태 **점검 결과** 및 사고 예방을 위한 **개선계획**을 **발표 · 공유**하는 시간을 가졌다.

○ 과거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**포스코**의 경우,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**안전 · 보건**에 대한 **투자를 대폭 확대***하고, 본사를 중심으로 **특별 안전점검** 및 **개선 조치**를 시행 중임을 밝혔다.

* ▵안전 · 보건 전담조직 신설 ▵담당 인력 증원('21년 524명 → '22년 912명, +388명, 74%) ▵예산 증액('20년 4,853억원 → '22년 8,324억원, +3,471억원, 71.5%)

- 포스코 김학동 대표이사는, "창립 이래 반세기 이상의 뿌리 깊은 생산 중심의 문화에서 **안전 중심의 문화로 대전환**을 시도하고 있으며, 관계사 직원을 포함하여 포스코 현장에서 일하는 **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도록** 하겠다"는 다짐을 나타냈다.

□ 이날 회의를 주재한 **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**은 모두 말씀을 통해,

○ "기존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절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으며,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**경영체계**에 **안전의식**을 **내재화**하여 경영과 안전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**기업 DNA를 바꾸어야** 한다"며,

- "내재화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**자율적 사고 예방 체계**를 **구축·이행**하고, 이러한 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**안전에 대한 투자**도 **대폭 확대**해 주시기 바란다"고 당부하고,

- "최근의 **글로벌 경영 트랜드**는 **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안전을 고려**" 하는 만큼 "**중대재해처벌법**을 규제로 인식하기 보다는, **ESG 경영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**로 생각하는 **사고 대전환**이 필요" 하다고 강조하였다.

- 아울러, "안전에 대한 **투자는 몇 배의 기업가치 상승**으로 되돌아 올 것"이라며, "이제는 **안전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**만이 **일류 기업**으로 거듭날 수 있다"고 말했다.

○ 이어서, "최근 「**중대재해처벌법**」 **개정**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"면서,

- "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율적 사고예방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킴으로써, **사망사고가 가시적으로 감소**하는 모습이 **우선 나타나야 한다**"고 말했다.

○ 또한, "앞으로 **기업이 스스로 사고를 예방**해 나갈 수 있도록 전국 현장을 돌며 **독려**하고, **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법**을 적극적으로 찾겠다"며,

- "오늘 참석한 업체는 스스로 사고 예방이 가능한, 우리 산업현장의 '**리더**'라 할 수 있는 **기업**이므로, **모범적인 안전보건 관리**를 실천하고 사고를 예방함으로써, **안전한 철강업계**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실 것"을 당부했다.

붙임 **'22년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 개요**

□ 개요

○ **(일시/장소)** '22. 6. 2(목) 14:30~, 한국프레스센터* 19층 매화홀

*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, 시청역(1호선) 4번 출구 앞

○ **(참석)** 고용노동부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철강사 CEO 등

* ▲(고용부) **장관**, 산재예방감독정책관,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등
▲(공 단) 이사장, 산업안전본부장 등
▲(철강사) 포스코, 현대제철, 동국제강, KG스틸, 세아베스틸, 세아창원특수강 등 6개사 대표이사 및 CSO, 한국철강협회 임원 등

○ **(안건)** ❶철강업종 **사망사고 현황** 및 **위험요인** 등 **점검**
❷중대법 준수 등 **사망사고 예방**을 위한 **CEO 의무 이행** 당부
❸업체별 자체점검 결과 및 **사고예방 계획** 등 공유

□ 세부 일정 * 장관 인사말씀까지 공개

시간	주요 내용	비고
14:30 ~ 14:35('5)	■ 개회 및 참석자 소개	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
14:35 ~ 14:45('10)	■ 인사 말씀	장관
14:45 ~ 14:55('10)	■ 고용노동부 안건 발표 - 철강업 사망사고 현황 및 위험요인 점검 -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CEO 의무 이행 당부	산재예방감독정책관
14:55 ~ 15:45('50)	■ 자체점검 결과 및 사고예방 계획 등 공유 * 점검결과 및 계획: 6개사 모두 발표(각 3분) 우수사례: 포스코 발표(7분) ■ 자유토론(건의사항 전달 등)	담당 임원 등 발표
15:45 ~ 15:50('5)	■ 마무리 말씀	장관